


보도자료		 <div>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div>
배포일자	2022. 12. 8.(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부서	·중국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김은우 부연구위원(86-21-6090-0395~6, hisgrace@kmi.re.kr)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4, pr@kmi.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중국 20차 당대회 이후 경제정책 방향 및 국제물류 디지털화 대응 모색

제20차 「KMI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12월 6일(화) 중국 상하이에서 제20차 「KMI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SKIFFA)가 후원했으며, 상하이 주재 공공기관, 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CEO 포럼은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국제물류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훈 북경사무소장의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분야별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향후 한중관계 협력 방안'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 쉬카이(徐凱) 해운정보연구소장이 '글로벌 공급사슬 리스크 상황에서 국제물류 분야 디지털·스마트화 발전 동향, 사례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근 국제해운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선사 머스크가 추진한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중단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질의에 대해 발표자인 쉬카이 소장은 선사 간 협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며, 향후 블록체인은 좀 더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KMI 박성준 중국연구센터장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逢山开路, 遇水搭桥)' 정신으로 2023년에는 △중국 공공기관과 협력 확대 △우리 해운·항만·물류 기업 지원 △시의성 있는 한중 협력 방안 발굴·제안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붙임> 제20차 KMI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 사진

<붙임> 제20차 KMI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 사진

